

SK그룹, 이웃돕기성금 100억원 기탁

SK그룹은 12월21일 그룹 자원봉사단장인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발표했다.

조정남 부회장은 성금 전달에 앞서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“경기침체로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한다”면서 “기업은 사회의 사랑과 지원으로 성장하는 기업시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(최고경영자)와 임직원들이 2006년 한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성금 전달에 대해 <2006년 사회공헌 활동의 마무리>라고 의미를 부여했다.

한편, SK그룹은 자원봉사단에 가입한 SK그룹 임직원 1만9042명이 2006년 총 32만9584시간의 봉사활동을 벌여 한사람당 평균 17.3시간을 봉사활동에 썼다고 집계했다.

<화학저널 2006/12/21>